

2018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1	③	2	③	3	①	4	⑤	5	④
6	④	7	②	8	⑤	9	③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②	15	③
16	⑤	17	②	18	④	19	①	20	①

생활과 윤리 해설

1. [출제의도] 윤리학의 유형 파악하기

‘나’는 응용윤리학자이며, ‘어떤 윤리학자’는 메타윤리학자이다. 메타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분석과 논증의 타당성 확보를 중시한다. 응용윤리학의 입장에서는 메타윤리학이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윤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음식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식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윤리적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의 기호를 넘어 식품의 생산 과정을 고려하여 식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식품 관련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출제의도] 예술에 있어 도덕주의와 심미주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도덕주의, 을은 심미주의 입장이다. 도덕주의는 예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며,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심미주의는 예술이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예술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도덕주의와 심미주의 모두 예술에 미적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4. [출제의도]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중신형이 범죄 억제력이 더 크다고 보아 사형제도를 반대하였다.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죽음에 대한 관점 이해하기

가상 설문 조사에 답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감각이 상실된 것이므로 경험할 수 없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내세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입장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담론 윤리를 주장하고, 담론 절차와 시민 사회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또한 담론 상황에서는 누구나 개인적 욕구와 희망을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관에 입각하여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시민 불복종이 불공정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시민 불복종 자체는 위법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로 본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경우에 불복종하는 행위이므로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즉시 불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8. [출제의도] 우대 정책 이해하기

갑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며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며 양성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충분하며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9. [출제의도] 환경 윤리에 대한 관점 이해하기

갑은 싱어,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싱어는 채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본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고유한 선을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본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행위가 옳다는 대지 윤리를 주장한다.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것은 싱어와 테일러의 공통된 관점이다. 또한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의 공통된 관점이다.

10. [출제의도] 유교의 효에 대한 관점 이해하기

㉠은 효이다. 유교에서 효는 부모에게 사랑과 보은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물질적 봉양과 정신적 공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덕행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때 완성된다고 본다. 유교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례의 형태를 통해 효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11. [출제의도] 과학 기술 윤리 이해하기

칼럼은 인간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등장을 우려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이나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롤스, 병은 노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분배를,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분배를, 노직은 소유 권리에 따르는 분배를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 정의가 산술적 비례가 아니라 기하학적 비례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롤스와 노직 모두 절차의 공정성으로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며, 노직은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13. [출제의도] 칸트와 니부어의 관점 이해하기

갑은 칸트, 을은 니부어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그 자체로 선택한 것으로 보며, 결과나 동정심을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의 근거로 보지 않는다.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사회집단의 도덕성보다 개인의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며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라고 본다.

14. [출제의도] 평화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적극적 평화를 강조하는 갈통의 주장이다. 갈통은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고 본다.

15. [출제의도] 종교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갑은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조화를 주장하는 입장이며, 을은 종교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갑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성스러움을 찾을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을은 신을 전제하지 않아도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16. [출제의도] 생명 윤리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고, (나)는 장기 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칸트는 (나)의 주장에 대해 인간은 목적적 존재로 대우해야 하며, 결코 인간의 신체를 수단화하는 장기 매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하기

강연자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권력화된 기술의 지배에 대응하여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되며 이러한 윤리학은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도출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책임의 범위를 현재뿐만 아니라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행위의 의도뿐만 아니라 결과를 고려하는 책임의 윤리를 주장한다.

18. [출제의도] 주거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는 볼노브의 주장이다. 그는 거주 공간으로서의 집은 외부 세계와 구분되는 안식처로써 참된 자신을 회복하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왓치의 정의 전쟁론 이해하기

왓치는 전쟁이 없는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정의로운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주권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방어 전쟁이라도 전쟁 수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20. [출제의도]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본다. 싱어는 세계시민주의 차원에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원조의 의무를 주장한다. 롤스는 원조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문화의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며, 싱어는 개인에게 큰 희생이 따르지 않는 한 정치체제와 관계없이 원조해야 한다고 본다.